

# 安鼎福의 詠史詩에 나타난 역사·문학성과 역사의식

김영숙\*

## 【 차례 】

1. 머리말
2. 안정복의 생애와 학문적 경향
3. 영사시에 나타난 역사·문학성
4. 영사시에 나타난 역사의식
5. 맺음말

## 【 국문초록 】

안정복(1712-1791)은 철학, 역사, 문학, 지리 등 폭넓고 다양한 학문을 이룩한 학자이다. 그의 저술은 48종이나 되며, 학문의 계통은 근기퇴계학파에 속한다. 특히 많은 저술 중 『동사강목』이 유명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가 지은 시는 137편인데, 사물을 보고 쓴 것, 교유한 인물과 우정을 쓴 것, 성현을 생각하여 쓴 것, 학문을 생각하며 쓴 것으로 구분한다. 이 연구에서 다룬 영사시는 역사를 읽고 느낌을 쓴 것이다. 고대 역사를 읽고 쓴 다른 사람의 영사시에 빠진 것이 안타까워 이를 보완하려고 쓴 작품은 「성기가」, 「웅산성장가」, 「천성행」, 「노사행」, 「백미총행」인데 형식을 노래시에 맞춰 자유로운 표현을 한 것이다. 장단구의 형식이기에 운율이 불규칙적이다. 장편으로 서사를 포함한 서정시의 성격이 강하다. 이 작품들은 외국과의 전쟁에서 용맹을 떨친 장수를 작가가 찬양하거나, 나라를 걱정하는 작가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중국 고대 진나라의 역사를 읽고 쓴 「영사」는 유곤, 괭박, 왕도, 온교의 재능을 찬양하고, 혼란기의 관직 생활에서의 득실을 평가했다. 고려의 역사를 읽고 쓴 시에서는 왕조교체기의 유명한 인물인 이색, 최영, 야길재, 권근의 재능을 찬양하고 관직생활에서의 처신을 평가했다. 이들 작품 8수는 근세시의 형식을

\* 대구한의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따라, 7언 4구의 정형으로, 기·승·전·결의 표현이 잘 되었다.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역사의식은, 역사 속의 인물들이 신하로서의 충절을 잘 지켰는지 못지켰는지에 기준을 두어 평가해야 한다는 데 주안을 둔 것이다. 위만조선, 삼국시대의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군사들의 충절을 포양하고, 고려말의 왕조교체기의 인물의 처신을 올바르게 평가한 의식이 작품에 나타나 있다. 다른 역사가들이 고려사에서 우왕, 창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안정복은 이를 인정했다.

**주제어** 안정복, 영사시, 역사의식, 「성기가」, 「웅산성장가」, 「천성행」, 「노사행」, 「백미총행」

## 1. 머리말

‘詠史’는 역사를 읊는다는 뜻으로 오래전부터 많이 쓰여왔기에 ‘詠史詩’는 역사를 읊은 시가 된다. 일찍이 중국에서는 班固, 王粲, 左史, 張協(景陽), 鮑照(明遠)의 영사가 유명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李奎報, 李崇仁, 崔溥, 金時習, 洪奭周, 安鼎福 등 여러 사람의 영사가 있다. 한 편을 말할 때는 영사란 말로 충분하나 악부시의 형식을 지닌 영사악부를 포함한 일련의 작품군을 일컬어 ‘영사시’라 하는 것이 내용과 형식에 부합한다. 중국의 영사시는 일반적인 근체시 형식으로 많이 지어졌는데, 후대로 오면서 관심이 더해져 여러 수를 한데 모은 작품집도 많이 간행되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악부시 형식을 빌어 영사악부를 짓고 작품집도 많이 간행되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많이 지어진 영사악부는 해동악부, 동국악부, 기동악부, 동방고악부, 대동속악부 등의 명칭을 사용해 중국악부에 대한 우리의 악부임을 드러내어 우리나라 역사를 악부시로 읊었다. 이들 영사악부는 문학성, 역사성을 아울러 지니고 있으며 남다른 역사의식을 가진 작가들에 의해 지어진 것이다.

안정복은 『東史綱目』 등의 저술로 인해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 대표적인 역사가로, 실학자로 평가되어 있다. 순암과 그의 저술에 대한 연구도 역사학자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며 철학적 연구가 뒤를 따르고 시문학에 대한 연구는 극히 부진하다.<sup>1)</sup> 순암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역사책에 가려져 역사적 연구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順菴叢書』 등 저술이 출간되어 있어서 여러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각 분야의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구가 역사학분야에 편중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순암 문학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137편의 시가 전하고 있고 시 가운데서도 역사의식을 살필 수 있는 작품과 사유와 현실의 서정을 다룬 작품은 더욱 연구할 가치가 있다. 문학작품 가운데서도 안정복의 학문적 성격으로 보아, 역사와 관련한 영사시를 고찰하는 것이 1차적인 작업이다. 본고에서는 안정복의 학문적 경향을 바탕으로 「觀東史有感效樂府體五章」, 「讀麗史有感」 4수, 「詠史」 4수를 다루어 역사성과 아울러 문학성과 역사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 2. 안정복의 생애와 학문적 경향

順菴 安鼎福은 1712년(숙종 38년)에 충북 제천 외가에서 安極의 아들로 태어나 늦게 공부를 하였지만 수많은 저술을 남기고 1791년(정조 15년) 廣州 德谷에서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쳤다. 유년기에는 가정사정과 조부의 전근으로 제천, 서울, 영광, 울산, 무주 등지를 옮겨다녔기에 정착된 수학활동은 하지 못했다. 26세에는 性理大全과 心經을 읽었으며 『治統圖』와 『道統

1) 역사·철학분야의 연구로는 강세구, 『안정복의 학문과 사상 연구』(혜안, 1996)의 40여 편의 논저가 나왔고 문학 관련 논문으로는 최준하, 「순암 안정복 문학의 일고찰」-시와 전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43, 어문연구학회, 2003, 12) 1편 등 저조하다.

圖』를 만들었다. 1740년 29세 때에는 『下學指南』을 찬하였으며 『井田說』도 지었다. 1746년 35세 때에 성호 이익을 배알하고 스승으로 섬기면서 성호의 문인들과 폭넓은 교유가 시작되었다. 1749년 厚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으며 이듬해 종사랑에 제수되었고, 1751년 義盈庫奉事에 승진되었고 1753년 歸厚署別提가 되었으며 퇴계의 언행을 모아 놓은 『李子粹語』를 편집했다. 이듬해 司憲府監察에 전근되었으며 1757년 『希賢錄』과 『臨官政要』를 완성했고 1759년 『東史綱目』을 완성했다. 1767년 『列朝通紀』를 초하기 시작했으며 1775년 『朱子語類節要』를 완성했다. 1781년 『家禮集解』를 완성했으며, 1785년에는 『詩經名物考』를 완성했다.

안정복의 학문적 경향은 그의 저술을 통해 알 수 있다. 서명이 전하는 저술의 수는 대단히 많다. 이 가운데는 사실 유무를 알 수 없는 것도 있고 실재는 있었으나 현전하지 않는 것도 있다. 연보나 행장에 서명이 나와 있으나 저술목록에는 없는 것도 있다. 하학지남의 끝에 붙어 있는 목록만 보더라도<sup>2)</sup> 경학, 문학, 역사, 지리 등 광범한 학문의 폭과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많은 저술 속에서도 문학의 경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는 시이다. 134편의 시는 무두 순암의 인생과 자연, 학문과 생각에 대한 서정이라 할 수 있겠는데 17편의 차운시에서는 교유 인물과의 情意를 나타냈고, ‘觀物’, ‘詠物十絶’ 등 영물시에서는 사물의 관조를 통한 생각의 관점을 드러냈다. 퇴계를 흠모하며 퇴계를李子라고 불러야 마땅함을 주장했다.李子粹語를 성호

2) 安鼎福이 지은 『下學指南』끝에 기록되어 있는 저술목록은 다음과 같다. 『擬問』, 『擬行家禮』 3권, 『內範』 2권, 『聖賢圖』 1장, 『正變統圖』 1장, 『下學指南』 2권, 『讀史詳節』 24권, 『東國地理志』 6권, 『洪範衍義』 60권, 『四時養性書』 1권, 『東史綱目』 10권, 『東史補闕』 3권, 『東國文獻通考』, 『嶺南先賢傳』, 『廣陵志』 2권, 『山居錄』, 『東國事文類聚』, 『東國逸史外紀』, 『三聖傳』, 『東國近思傳』, 『箕子通記』, 『三賢傳』, 『東國烈女傳』, 『東國高士傳』, 『南史』, 『西陽記』, 『臨官政要』, 『名物考辨』, 『封說』, 『家禮集解』, 『希賢錄』, 『八家百選』, 『井田說』, 『道統圖』, 『治統圖』, 『學約』, 『澗約』, 『論孟擬問』, 『大學經說』, 『語類節要』, 『兵鑑』, 『德說類編纂』, 『小學講義』, 『史鑑』, 『列朝通記』, 『木川志』, 『百詩選』, 『文章發揮』. 이 가운데는 전하지 않는 것도 있다.

와 함께 편찬하며 퇴계를 많이 이해했지만 퇴계시를 차운해 사모의 정과 생각을 더욱 가깝게 그린 작품도 남겼다.<sup>3)</sup> 『李子粹語』 교정을 보면서 스승 성호에게 퇴계를 ‘이자’라 지칭해, 서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자는 주장도 했다.

子思子·子程子 등은 모두 후인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모해서 쓰는 말이다.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는 존경과 사모의 대상이 퇴계 이상 없을 진대 그를 이자라고 지칭해도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의의가 없을 것이다. 이 책을 보는 이들이 그 점을 알아 주었으면 좋겠다.<sup>4)</sup>

이 말을 보더라도 퇴계를 얼마나 존송했는지를 알 수 있으며 학문적 경향도 짐작할 수 있다. 「讀大學」, 「讀心經」 등의 독후감시에서는 학문에 대한 정회를 나타냈다. 안정복은 역사 지리적 학문과 함께 성리학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 경서류를 읊은 시들을 통해서 그의 성리학적 사유를 알 수 있다. 「題抄書籠」, 「題著書籠」은 책 살 돈이 없어 빌린 책을 베끼느라 병이 난 모습, 책을 쓰는 기쁨을 나타낸 것으로 호한한 저술을 남긴 배경을 알 수 있는 작품이며, “저서하는 것을 집 식구와 친구들이 미치광이로 보는 것 같다.”<sup>5)</sup>는 표현에서 저술의 열정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룰 영사시는 남다른 역사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철학과 관련한 순암의 성리론은 성호학파의 이기논쟁에서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고, 불교 비판과 천주교 배척, 양명학 비판 등으로 벽위론을 전개하기도 했다. 한편 순암은 역사학을 기반으로 하

3) 安鼎福, 『順菴集』 권1에 「敬次退溪先生病慵韻」, 「次退溪集韻示趙生英如」 두 편이 보인다. 특히 앞의 작품은 퇴계 55세 때의 작품을 차운한 것이다. 순암이 55세 때 병으로 책을 읽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퇴계시를 읊으니 感傷이 일어나 차운작을 짓는다고 跋書까지 했다.

4) 安정복, 앞의 책, 권2, 장7, 「上星湖先生書」, “...或以爲子思子子程子 皆後人尊慕之語也 東人之尊慕 無過於退溪 則李子之稱 宜東人之無異辭也 觀此篇者 幸有以知之云...”

5) 安정복, 앞의 책, 권1, 장8, 「題著書籠」, “我有漢山業 相承八百年 家世本清貧 曾不有簡編 ... 家人與朋友 視之若狂癡 燕石謾自珍 子雲曾草玄.”

는 현실개혁사상도 지녔다 이러한 순암의 학문은 그의 스승 성호의 우파로서, 近畿退溪學派에 속하며, 黃德吉·許傳으로 이어진다고 규정한<sup>6)</sup> 것으로 볼 때, 학문적 경향은 문학·역사·철학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 3. 영사시에 나타난 역사·문학성

순암의 영사시는 「觀東史有感效樂府體五章」, 「詠史」 4수, 「讀麗史有感」 4수이다. 모두가 넓은 의미에서 영사시이지만 제일 앞의 작품은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악부시의 일종인 영사악부이고 뒤의 작품은 일반적인 영사시이다. 이외에도 광주부지를 편수하다가 병자·정묘난 기사를 보고 지은 3편과 제갈량·도연명의 전기를 보고 쓴 작품도<sup>7)</sup> 영사시에 해당된다. 이것은 부자료로 삼는다. 문학성을 살펴 본다.

#### 「觀東史有感效樂府體五章」

이 작품은 순암이 동사를 보고 느낀 점이 있어 악부체를 본받아 지은 것이다. 심광세의 해동악부와 스승인 이익의 해동악부를 보고 썼다고 했다.

다음과 같이 서문에서 창작동기를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악부고가가 몇 종류 있지만 그중에서도 휴옹 심광세가 지은 것을 으뜸으로 치고 있다. 그러다가 우리 성호 선생의 악부가 나와 비로소 집대성이 되어 그 동안 분명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밝힘으로써 사가들이 빠뜨린 것을

6) 이우성, 「韓國儒學史上 退溪學派의 形成과 展開」, 『韓國의 歷史像』, 창작과 비평사, 1983, p94.

7) 안정복, 앞의 책, 권1, 「修光州府志至丙丁事閣筆濟然謾書一律」, 「出南門憶崔遲川當日事馬上慨然成七絕」, 「又一絕」, 「嘗編諸葛亮陶淵明二傳以觀之止菴有詩要和遂步其韻」

많이 보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기이하 몇 조항이 누락되었기에 감히 선생의 작품을 흉내내어 지으니, 가사는 비록 거칠고 졸렬하나 실려있는 사실은 빠뜨릴 수 없는 것이다. 언젠가 이 작품을 선생께 보여 드렸더니 그냥 물리쳐버리지 않으셨기에, 이를 기록하여 후일 참고가 되도록 한다.”<sup>8)</sup>

이 서문은 짧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순암은 동사강목을 편찬할 생각으로 동사를 읽다가<sup>9)</sup> 빠진 것이 많음을 깨닫고 악부시를 지었다. 자신의 작품을 지을 때까지 우리나라 악부고가에 대해 소상하게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를 직접 보았음을 밝혔다. 심광세의 해동악부를 약간 소략하지만 제일로 여겼고 이익의 해동악부를 집대성한 차원에서 그 가치를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休翁의 작품을 ‘巨擘’이라 한 것은 작품집명을 ‘海東樂府’라 하여 중국악부에 대한 우리의 악부임을 강조하였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권선징악의 대상이 될만한 소재를 택하여 각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 포폄을 통한 감계의 기능을 잘 나타냈기 때문이다. 성호의 작품을 ‘集大成’이라 한 것은 시대별, 사료별, 내용별, 형식별로 다양하고 악부시 소재가 될 만한 것을 모두 모았다는 의미인 것이다. 사기들이 빠뜨린 것을 보충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 심광세, 이익의 해동악부를 영사악부로 규정한 사실도 알 수 있다.

순암은 성호의 해동악부를 본받아 지었다고 자술한 점에서 성호 작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영사악부임을 알 수 있고, 누락된 것을 지었다는 것에서

8) 안정복, 앞의 책, 권1 장12-13, “吾東方樂府古歌有數種 而休翁沈光世所著 稱爲巨擘 我星湖先生樂府出而後 集大成而發揮幽隱 多可以補史家之闕 然而成己以下 數條見漏 故茲敢效 嘖 先生之作 詞雖蕪拙 其事則不可闕矣 嘗以此舉似先生 而不被斥 故錄此以備後考.”

9) 순암이 읽은 동사는 순암 사후에 발간된 李種徽의 『東史』가 아니고 吳澐의 『東史纂要』, 林象德의 『東史會綱』 등과 기타 우리나라 역사서를 범칭하는 뜻으로 쓴 것 같다. 이종휘는 순암과 거의 동대의 인물이지만 출생이 늦고 『東史』가 그의 문집 『修刪集』에 편입되어 순암 사후에 발간되었으며 순암이 동사강목 편찬에 참고하고 동사강목 앞에 기록한 채거목록의 동국서적에 빠져 있는 점으로 보아 순암이 여러곳에서 말한 동사는 이종휘의 『동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 다루는 弩士行의 15구 ‘東史斷爛中史諱’에서도 중국의 역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사란 의미로 동사를 사용했다.

소재적 관점과 특성을 알 수 있다.

실제 작품을 보기로 한다.

### 成己歌

작품 앞에 위만조선 右渠의 대신 成己가 漢軍과 싸운 史話가 병기되어 있다.<sup>10)</sup> 이 사화를 수용한 작품을 보기로 한다.

한나라 무제는 싸움 좋아해 먼 나라 치려해,	漢皇黷武思遠略
고조선엔 殺氣가 하늘 가깝게 어두웠다네.	箕東殺氣彌天黑
누선장군은 배에 돛을 달고 요해로 내려오고,	樓船掛帆下遼海
좌장수는 말을 몰아 갈석산을 경유했다네.	左將躍馬由礪石
여리고을 다 찢기고 서울이 기울어져도	諸縣幅裂王都傾
여기저기 보이는 건 매국노 뿐이었다네.	但見紛紛賣國賊
안위의 순간에 대신이 있었으니,	安危却有大臣在
피눈물 흘리면서 외로운 성 지켰다네.	沫血飲泣守孤城
고성의 급한 형세 위기일발 되었으니	孤城勢急危如髮
홍모같이 여긴 목숨 여기에서 죽었다네.	到此一死鴻毛輕
대동강 아득히 출렁이고	浪水洋洋
왕검성 우뚝 서 있는 곳	王儉高嶽巖
성기의 큰 명성 지금까지 전해 오는데,	成己大名留至今
모반했다 죽였다 이 무슨 논의인가,	書反書誅是何義
못 잡은 사신이 서법을 모르는구나.	史臣秉筆迷書法

제목을 성기라는 주인공 이름을 따서 成己歌라 했다. 사건보다는 인물에 중점을 두어 제명한 작가의 표현 태도를 알 수 있다. 1·2구에서는 한 나라와 위만조선의 국력을 대비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무제의 도전적 위협

10) 안정복, 앞의 책, 권1, 장14 “漢書 武帝滅朝鮮 朝鮮已降 王儉城未下 右渠之大臣成己 又反 復攻吏 苟歲諭其民 誅成己 以故遂定朝鮮 東國通鑑 因以書之.”



과 불안한 분위기를 통해 전개될 사건의 양상을 암시하고 있다. 3·4구에서는 한의 일방적인 침략을 동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누선과 좌장군의 모습과 움직임을 지리적 공간을 따라 구체적으로 나타냈다.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경유하는 요동의 바다와 중국 동해에 있는 갈석산을 구체적으로 노출시킴으로서 사실적 내용을 시로 변용시킨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3구의 누선장군은 당시 楊僕 이었고 4구의 좌장군은 荀彘였는데 이름만 거명하지 않았을 뿐 실제 역사적 사실을 시구로 변용하여 영사시의 구체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5·6구에서는 한의 침략으로 서울이 함락된 것과 賣國賊을 노래했다. 순체에게 동조하여 나라를 팔아 살기를 원했던 위만조선의 재상 賂人 등을 의미한다. 7·8구부터 대신 성기를 등장시켜 피눈물을 흘리며 왕검성을 지키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표현했다. 9·10구도 위기 일발의 전장에서 목숨을 홍모같이 여긴 성기의 죽음을 긴장미 넘치게 구성했다. 11·12구에서는 출렁이는 패수와 높은 왕검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성기의 명성이 지금까지 전한다고 성기의 충성을 포양하고 있다. 14·15구에서는 결론적으로 한서에 잘못 쓰인 것을 동국통감에도 그대로 쓴 史臣의 秉筆을 폄자하고 있다. 형식과 표현에서도 일반시와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악부시의 특징인 자유로운 표현과 형식으로 서사와 서정이 조화를 이룬 점이 돋보인다. 7언 제언의 전체 속에서 11·12구의 5·5언은 파격의 질서로 강조와 대조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으며 자유로운 환운은 악부시로서의 다양한 압운법을 나타내고 있다. 平仄, 押韻, 對仗 등 형식에 제약이 없는 악부시조탁의 흔적이 없는 자유로운 표현의 시적 형상을 이루었다.

### 襄山城將歌

신라 태종 8년에 백제의 남은 적들이 웅산성을 점거하고 있을 때, 왕이

사신을 보내 타일렀으나 웅산성장이 항복하지 않아 김유신이 가서 성장을 잡아 죽인 사화<sup>11)</sup>를 시로 쓴 것이다.

<p>웅산성이여! 독만큼이나 작으나 장군의 기상은 어찌 그리 우뚝한가? 성난 눈은 빛나며 수염은 찢어질 듯 뺏뺏하고, 안중엔 나당 연합군도 없었네. 남아는 의가 중요하고 부귀는 가벼이 여겨야 하니, 이 때에 값진 길 선택했다네. 종묘 사직 다 망하고 임금도 항복했는데, 천지에 머리 들고 장차 어찌 하오리. 망한 나라 부흥시킬 기회 반드시 있나니, 제나라 온전히 회복시킨 건 바로 즉묵현이네. 진지에서 한번 호령 사납기 범과 같아, 한 군인 목숨 걸고 수많은 군과 싸웠다네. 아 저 태양도 장군의 속마음 몰랐던가, 지금도 억울하게 죽은 피 푸르게 흐른다네. 하늘에 있는 영혼이야 웅당 외롭지 않으리니, 계백·주근 두 장군과 서로 짝이 되리라. 웅산성 작기가 독과 같지만, 장군의 큰 이름 천고에 빛나리.</p>	<p>甕山城 小如甕 將軍之氣何崢嶸 怒目煌煌鬚如磔 顏底已無唐羅兵 男兒義重富貴輕 熊魚取舍此其時 宗社亡矣國君降 擧頭天地將何爲 興衰撥亂會有期 恢復全齊惟卽墨 臨陣一呼猛如虎 百千義勇爭死敵 嗚呼白日不照將軍之衷誠 至今冤血流爲碧 英魂在天應不孤 階伯周勤相爲伍 甕山城 小如甕 將軍大名垂千古</p>
---	--

이 작품도 제목을 웅산성장가라 하여 웅산성을 지키던 장수를 노래하겠다는 작가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드러내 보였다. 처음부터 작은 웅산성과 큰 장수의 기상을 대조적으로 나타냈다. 3·4구의 장수의 모습과 기상은 역사기록에서 볼 수 없는 문학적 표현의 극치이다. 응축이 중요한 시이지만 장수의

11) 안정복, 앞의 책, 권1, 장14 “新羅 太宗王8年 百濟餘賊據甕山城 王遣使諭之 不服 金庾信進圍 脣濟人曰 若早降 富貴可期 城將曰 城雖小 兵食俱足 士卒義勇 寧戰死 誓不生降 庾信陷城 獲其將殺之”

모습을 나타낸 것은 묘사에 가깝다. 5·6구는 성장의 생각을 작가가 대신하여 충신의 일반적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와 행위는 12구까지 이어진다. 10구에 이르러서는 제나라를 회복시킨 卽墨縣의 예<sup>12)</sup>를 들어 웅산성을 승화시키고 있다. 웅산성장의 용맹은 11·12구에서 절정에 이르러 장수가 호령하고 따르는 병사들의 모습은 한편의 영화나 드라마 같다. 이러한 긴장의 절정은 13구에서부터 반전되어 성장의 충성이 후일에 조명되지 못해 원혈만이 전함을 탄식하다가 15·16구에서 백제의 충신 계백과 주근과 하늘에서 짝을 이루어 외롭지 않으리라는 자위로 끝을 맺었다. 17·18구에서 작은 웅산성과 큰 장수를 대조시켜 명성이 후세에 길이 남도록 포양하고 있다.

이 작품 역시 악부시의 형식과 표현을 살려 노래시를 의식해 창작했다. 전체적으로 7언 제언의 편법내에서 1구와 17구를 일반적인 6언이 아닌 3·3언을 쓰고 13구를 '오호'란 영탄구를 넣어 11언의 장구를 만들어 파격을 이루었다. 이 부분들은 파격이지만 강조와 대조를 보여준다 1구와 17구의 반복은 중국악부에서 간혹 쓰인 표현방법으로 의미의 강조와 운율적 변화를 겸하여 느끼게 한다. 7언 18구의 장편에서 느낄 수 있는 漫然性에 긴장미를 첨가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꾀하고 있다.

### 泉城行

신라 문무왕 15년에 당나라 설인귀가 천성을 공격해 왔는데 장군 문훈이 맞아 싸워 크게 이긴 사화를 시로 썼다.<sup>13)</sup>

12) 『史記』 「田敬仲世家」, “戰國齊邑 田單以火牛破燕軍於此 秦末 楚項羽徙齊王田市爲膠東王都此 漢置卽墨縣 北齊廢 故城在山東省平度縣東南.”

13) 안정복, 앞의 책, 권1, 장15. “新羅 文武王十五年 唐薛仁貴攻泉城 將軍文訓 逆戰 斬千四百級 取兵船四十艘 仁貴退走 得戰馬千匹 擊李謹行於買肖城破之 得戰馬三萬三百八十

설인귀는, 당나라 명장으로,  
 한 번 싸워 요동을 탈취하고,  
 두 번 싸워 평양을 공격하여,  
 전쟁에 이긴 공로 기세 당할자 없었다네.  
 요하 동쪽 어디에도 굳건한 보루 없었으니,  
 어찌하여 천성 싸움에서는 쥐처럼 도망쳤던가  
 문훈의 재주는 비길 데 없었으니,  
 특히 문훈의 재주 비길데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때 신라는 운이 일어나는 시기여서  
 임금 신하 어질어 이길 수 없었다네.  
 당 고종은 무슨 일로 군대를 일으켰는지  
 예부터 망한 나라엔 반드시 틈이 있었으니,  
 그 후에 적들이 재능을 발휘했다네.  
 호해가 덕을 잃자 항우가 용맹 떨쳤고,  
 부차가 태황했기에 범려가 슬기로왔네.  
 내 말 늙어서가 아니라 사실이 그런 것  
 아 후세 임금들도 당연히 명념해서 기억하리

薛仁貴 唐名將  
 一戰取遼東  
 再戰擊平壤  
 戰勝功取勢莫當  
 遼河以東無堅壘  
 如何泉城一戰走如鼠  
 文訓之才無與比  
 不特文訓之才無與比  
 此時新羅應運起  
 主賢臣良無可乘  
 唐皇忿兵胡乃興  
 自古亡國必有弊  
 然後敵人奮才能  
 胡亥失德項籍勇  
 夫差怠荒范蠡智  
 我言非老信如此  
 嗚呼後辟當念記

제목은 천성행이라 하여 앞의 두 작품과 구별되지만 천성이란 城 이름과 行이란 악부시체를 써서 노래시로서의 성격을 드러내었다. 1구부터 5구까지 전반부는 당장 설인귀가 전쟁마다 승리하는 전과를 포양하여 비범한 인물로 부각시켰다. 요동을 취하고 평양을 진격하여 요하 동쪽엔 당할 자가 없었다고 극찬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6구에서 반전된다. 그렇게 대단했던 설인귀도 천성 싸움에서는 쥐처럼 도망간 사실로 앞의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문훈의 재주와 신라의 국운이 일어났고 임금과 신하가 모두 일어났기에 당나라가 이길 수 없었다고 했다. ‘如何’란 관용구를 붙여서 전반부의 반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不特’이란 말을 붙여 문훈 뿐만이 아니라 국운이 융성했음도 강

조하였다. 전반부가 당과 설인귀의 우위를 나타내었다면 중반인 10구까지는 문훈과 신라가 더 우수함을 나타낸 반전의미를 나타내어 소설과 같은 서사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11구부터 15구까지는 설인귀를 보내 신라를 공격한 당 고종의 실책을 ‘亡國必弊’의 평범한 진리를 들어 폄자하였다. 호해의 틈을 본 항적, 부차의 틈을 본 범려의 예를 들어 역사적 평가를 짓구로 보여준 論詩이면서 評詩이다. 마지막 16·17구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옳으니 후대 왕들에게 명심하라는 鑑戒를 보이고 있어 작가의 강한 신념과 역사의식을 알 수 있다.

형식에서도 장단구의 묘법을 살려 노래를 의식한 악부시의 면모를 나타냈다. 전반부 3·3, 5, 5, 7, 7, 9, 7, 9, 7언과 후반부 7언제언은 변화와 안정의 조화를 이루었다.

### 弩士行

고구려 영양왕 25년에 수나라가 정벌하자 영양왕이 겁이나서 사신을 보내 항복하겠다고 빌었다. 수 나라 왕이 표문을 읽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활을 당겨 그의 가슴을 명중시켰던 사화를 시로 쓴 것이다.<sup>14)</sup>

양광의 죄는 천지에 가득한데,	楊廣罪惡盈天地
두 번이나 병력 일으켜 요동 갈석 쳐들어왔다네.	再興驕兵來遼碣
원래 크고 작은 세력 대적할 수 없어,	由來大小勢不敵
고구려 군신 모두가 놀라 혀를 내들렀네.	句麗君臣皆吐舌
압록강은 그다지 험한 요새 못되어,	鴨江不能持其險
을지문덕도 기묘한 술책 낼 수 없었다네.	乙支無所出其奇

14) 안정복, 앞의 책, 권1, 장15. “高句麗 嬰陽王二十五年 隋主來伐 往懼遣使 乞降 三國遺事云 時有一人 密持小弩於懷中 隨表使 到帝所 帝讀表 弩發中帝胸 帝將旋師謂左右曰 朕爲天下主 親征小國而不利 萬代之所嗤也 今見此人 是菟菟之流也.”

표문 들고 신하라 말해야 할 정도로 사태가 급해,	奉表稱臣事已急
사신들이 밤낮없이 서복으로 달렸다네.	使蓋日夜西北馳
그 속에 섬뜩 나타난 대단한 남자,	箇中閃出大男子
소매 속에 품은 신력은 천석처럼 강했다네.	袖裏神弩千石強
마치 진시황이 독항도를 막 쫓려고 할 때,	秦皇方啓督亢圖
조말이 단상에서 비수를 번뜩일 때 같았네.	曹沫壇上匕首強
토끼처럼 쥐처럼 도망 간 것은 다행이었지,	兔脫鼠竄亦幸耳
독부도 갑옷 싸들고 허겁지겁 도망갔다네.	獨夫捲甲走蒼黃
우리 역사엔 기록이 없고 중국에선 숨졌기에,	東史斷闕中史諱
이 사실 천년 동안 까마득히 모른다네.	此事千秋視渺茫
그대는 보았나요 박랑사에서 진시황을 칠퇴로 친 일을,	君不見博浪椎秦客
예로부터 의인 협객이 동방에서 나왔다네.	自古義俠出東方

이 작품도 제목을 악부시의 문체인 行을 붙여 弩士를 노래한다는 뜻으로 했다. 1·2구에서부터 수나라 양제의 東侵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고구려를 두 번이나 침입한 데 대한 원한을 배경으로 삼았다. 대국과 소국의 형세로 대적이 되지 않는데다가 이를 당하기만 하는 고구려의 입장이 어려웠음을 인정하고 을지문덕 같은 장수도 뺏족한 수가 없었던 안타까움을 3·4, 5·6구에서 나타냈다. 이러한 수의 우세와 고구려의 열세는 7·8구에서 극대화된다. 수나라의 요구를 수용하고, 사신들이 북쪽으로 달려가 항복의 표문을 바치는데 까지 나아갔다.

9·10구에 이르러서는 大男子 즉 弩士의 등장으로 이러한 우열이 반전될 기미가 보인다. 보통 남자가 아닌 사람을 대남자라 했다. 소매 속에 품은 神弩는 千石처럼 강하다는 표현으로 주인공의 용맹을 비유했다. 11·12구에서는 중국의 역사적 사례를 들어 고구려의 이름 모르는 노사를 승화시켰다. 『史記』 刺客列傳의 荊軻와 趙沫의 사건을 시로 썼다. 형가가 진왕을 죽이려 가면서 우선 진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독항의 지도를 바친 사실과 노나라 莊公이 제나라와 싸워 지고는 柯에서 맹약할 때, 趙沫이 비수를 들고 제나라 환

공을 위협하면서 의분에 복받치는 말을 하자 환공은 그 동안 노나라에서 빼앗은 땅을 그 자리에서 되돌려 준 사실을 시구로 구성했다. 노사를 형가와 조말에 견주었다. 고구려의 형가요 고구려의 조말이라고 노사를 포양했다.

13·14구에서는 7·8구의 분위기가 반전되어 도망가는 수나라 군사의 모습을 토끼와 쥐에 비유하여 해학적으로 나타냈고, 15·16구에서는 이 사실이 우리와 중국 역사에 빠져 있음을 한탄한 뒤 17·18구에서는 張良이 博浪沙에서 力士를 시켜 진시황을 철퇴로 저격한 사실을 詩化하여 의인 협객의 정당성을 칭유하고 있다.

이 작품은 7언 제언의 통일된 형식 위에 악부사에서 흔히 쓰이는 칭유형 영탄구 ‘군불견’을 사용하여 일부분의 과격으로 강조하고 있다.

### 白馬塚行

동명 金世謙의 『槎上錄』과 보한재 申叔舟의 『海東諸國記』를 보고 백마총 관련 사화를 시로 쓴 것이다<sup>15)</sup>

백마총이 일본 지역에 있는데,	白馬塚 在日域
왜인들이 대대로 무덤 손질하며 하는 말	倭人世世勤封築
옛날 신라 왕이 분하여 쳐들어 올 때	渭昔羅王憤侵軼
정병 수만명이 바다에 떠 밀려오니	精兵數萬浮海伐
물귀신도 뒤로 주춤 해신도 길을 비켜	馮夷辟易海若奔
큰 바다 동쪽에는 거칠 것이 없었다네	大海以東無涯瀾

15) 안정복 앞의 책, 권1, 장 16, “金東溟世謙 槎上錄云 觀其年代記 倭皇神應之二十二年 新羅兵入明石浦 距大阪纔百里 赤間關東有一邱壘 倭人指之曰 此即白馬墳 新羅兵深入 日本人請和 解兵刑白馬以盟 埋馬於此云 據申保閑海東諸國記 應神之二十二年 當新羅儒理王之八年 卽晉惠帝元康元年也 此事東史不見 海東記 達敏天皇癸卯 新羅來伐西鄙 當羅眞平王之五年 又元正天皇庚申 新羅來伐西鄙 當聖德王之十九年 東史皆逸 今東海海中絕影島 有古壘 世傳 新羅太宗伐倭時所築 人稱太宗臺.”

용 깃발 휘날리고 타고를 울리면서	揚龍旆 擊鼙鼓
선발대가 곧바로 명석포를 공격하니	前茅直擣明石浦
왜왕이 겁에 질려 화친을 청하여	倭王失色事和親
짐승 잡아 맹세하고 신명께 고하였네.	刑牲載書告明神
그 후로 성난 파도 오랫동안 일지 않아	從此鯨波久不涌
천고의 승적으로 저 무덤이 남았다네	千古勝蹟留遺塚
절영도에 옛 보루터가 있어	絕影又有古壘榛
후인들 이것을 태종대라 말하지만	後人說是太宗臺
총알만한 땅 신라의 한 모퉁이에 있으면서	彈丸羅地在隅
장하구나 병력이 어찌 그리 강했던가	欲歟兵力何壯哉
후세가 되어서는 옛 날과 반대되어	歸來後世事反古
우리 나라 전역이 침략과 업신여김 당하고	人東全地受侵侮
지금도 해상에 많은 헛소리 공갈배가	至今海上多虛囑
해마다 곡식과 비단으로 욕심 채우네.	穀帛年年充其欲
조용히 생각하니 어찌 그 까닭 없었겠나	靜思其故豈無因
서생이 부질없이 변방 안정시킬 계책을 만드리라.	溥生漫有安邊策

이 작품도 제목에 악부시 문체인 行을 붙여 백마총을 노래한다는 의미로 썼다. 백마총 관련 역사는 동사에 빠져있기에 김세렴의 『槎上錄』과 신숙주의 『海東諸國記』를 참고하여 악부시를 지었다. 1·2구에서 일본 해역에 있는 백마총을 노래하듯 서술했다. 3구부터 12구까지는 일본인들에게 들은 내용을 시화한 것으로 역동적이고 현실감있게 나타냈다. 기록에는 신라 군대가 쳐들어 왔다고만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정병이 수만명, 물귀신이 길을 비킴, 용깃발과 鼙鼓, 선발대의 명석포 공격, 겁에 질린 왜왕, 맹서와 신명에 고향’ 등의 사물과 사건은 사회를 바탕으로 작가가 상상해서 구성한 것이다. 평면적인 역사 기록과 달리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시적 형상으로 감동과 흥미를 자아낸다. 11·12구에서는 조용하고 정적인 분위기로, 전반부의 격렬한 상황의 결말처럼 느끼게 한다. 13구부터 16구까지는 절영도에 있는 태종대의 전설을 바탕으로 신라 군사가 강했음을 감격적으로 나타냈으며, 강국의 신라



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 사평이 함축되어 있다.

17구부터 22구까지는 앞 부분의 반전으로, 옛날과 정반대가 된 당대의 현실을 애통해하며 우국의 감정을 드러냈다. 왜적의 침략을 자주 당하고 해마다 약탈을 당하는 조선시대에 막강한 안변책이 없음을 안타까이 여겨, 작가가 스스로 그 계책을 생각해 보는 우국의 서정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7언 제언의 통일성을 보인 가운데 1구의 6언과 7구의 6언은 일반 한시의 6언과 달리 3·3언의 소구문으로 악부시에서 흔히 쓰이는 구법을 사용했다. 첫구에서 노래 제목을 사용하여 반복과 강조의 기능을 나타냈으며, 하고 7언 제언의 균형을 깨어 비정형 속의 정형을 추구했다.

### 「詠史」

이 작품은 하나의 제목에 4수를 쓴 연작이다. 제목 옆에 '이 때 진서를 읽고 있었다. 임신'이란 註를 붙여 시를 쓴 시기와 동기, 배경을 알 수 있다. 이 때는 1752년 41세로 통훈대부에 승진되고 靖陵直長에 제수되던 해이다. 시 내용을 보면 작품 끝에 성명이 기록되어 있어 열전을 읽고 특별히 4명에 대한 시를 썼음을 알 수 있다. 시를 본다.

옛날 가밀의 집 드나들던 나그네가	昔時賈謐門前客
오늘은 趙王 倫의 귀중한 손님되었네.	今日王倫幕裡賓
비로소 허풍쟁이는 일을 해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겠으니,	始識浮華難濟事
조생(遼)은 남에게 얽매여 살 사람이 아니라네.	祖生終是不羈人
-이상은 劉琨을 읊음-	-右 劉琨-

유곤은 中山 魏昌 사람이었다. 조부 邁가 相國參軍 散騎常侍를 지냈고 부 蕃은 光祿大夫에 이르렀다. 기구는 26세 때 司隸從事가 되어 石崇의 金谷澗 別廬에 출입했고 秘書監 賈謐이 조정을 參管할 때 石崇, 歐陽建, 陸機, 陸雲

등과 함께 이른바 ‘二十四友’의 일인으로 가미를 섬겼던 사실을 시화한 것이다. 승구는 조왕 룬이 집정할 때는 룬의 아들 莠가 유곤의 姊壻가 되어 記室 督, 從事中郎을 지냈던 사실을 쓴 것이다. 전구는 어려서 다양한 재주로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잘 교제했으나 자못 부과했다는 평을 들었던 사실을 시화한 것이고 결구는 소년 시절부터 절친했던 친구 조적이 등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 ‘나도 창을 베개 삼아 역적의 목을 벨 각오로 때만 오기를 기다리면서 조적이 나보다 먼저 말에 채찍을 가할까 늘 염려했다’고 하여 ‘祖生之鞭’이란 고사를 남긴 일로 유명한 사실을 읊은 것이다.

경방과 괘박 <sup>6)</sup> 은 당년에 주역으로 이름 날렸는데,	京郭當年以易名
길흉을 지시하여 묘하게 나타냈네.	指凶示吉妙難形
어찌하여 형편 따라 숨어야할 때 숨지 못해,	如何不識潛龍義
운수대로 마음 편케 목숨 보존 몰랐던가.	任運頹心保此生
-이상은 郭璞을 읊음-	-右 郭璞-

괘박은 진나라 때 聞喜사람으로 경술을 좋아했고 박학하였으며 재주도 있었다. 괘공에게 卜筮를 배워 五行, 天文, 卜筮術이 뛰어나 京房, 管輅와도 견줄만 했다. 「江賦」, 「南郊賦」 등 詞賦를 잘 해 著作佐郎이 되었다.

기구는 주역의 대가 京房과 괘박을 제시하여, 괘박도 음양오행을 잘 했기에 한 범주에 포함시켜 대단한 인물로 다루었다. 승구는 괘박이 애제·회제

16) 시 원문을 보면 주역을 잘한 두 사람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 주역 잘 한 사람으로 경은 한대 주역의 대가 京房을 지칭하나, 괘씨 중 주역의 대가는 당대의 郭京이 유명하다. 이렇게 볼 경우 郭京은 괘박보다 훨씬 후대인이고 시의 실제 대상 인물은 괘박이기에 내용이 불안정하다. 따라서 상대 주역에서는 卜筮를 주역의 원리로 보았고, 경방의 역학이 주역을 吉凶占筮의 巫觋로 보아서 많은 점산 원리를 창조하고 아울러 점산 해석 방식에서 孟喜의 패기설을 발전시켜 독특한 역학체계를 형성한 특징이 있기에(廖名春·康學偉·梁華弦 지음, 심경호 옮김,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1995, p181) 괘씨를 괘박으로 보았다. 괘박이 진대 당시 卜筮의 대가였다.

때 점술로 화를 면하게 했고, 元帝가 建鄴을 진압할 때 점술을 써서 도왔으며, 그 후 해에 검은 기운이 있는 등 이상한 조짐이 있을 때 마다 상소하여 해를 입지 않게 한 사실을 응축한 것이다. 전구와 결구는 곽박이 주역 潛龍의 의미를 모르고, 왕돈이 역모를 꾸밀 때 길흉을 점쳤다가 흉한 점괘 때문에 왕돈이 화가 나서 자신을 죽이게 되는 줄을 몰랐느냐고 반문하여 폄자한 것이다.

무홍은 충분히 세상을 경영하리라 기대를 모았는데,	茂弘雅望足經時
‘강좌의 이오’라고 입으로 전해졌네.	江左夷吾有口碑
난세를 태평으로 바꾸진 못했지만,	濟難雖無旋轉術
한 마음으로 삼세섬겨 안위를 걸머졌네.	一心三世繫安危
-이상은 王導를 읊음-	-右 王導-

왕도는 진나라 臨沂 사람으로 자가 茂弘이다. 14세 때 陳留가 보고 將相의 그릇이라 여겼으며, 원제가 낭야왕일 때 서로 친하게 지냈다. 비서랑 태자사인 등을 거쳐 원제를 잘 보필하여 원제는 왕도를 보고 “경은 나의 소하다”<sup>17)</sup>라고 하였으며 桓彝는 그를 “江左의 管夷吾(管仲)”<sup>18)</sup>라 했다. 후에 재상이 되었고 明帝, 成帝 등 삼조를 섬겼다.

기구는 원제가 낭야왕으로 있을 때 왕도가 낭야왕을 잘 보필하는 것을 보고 紀瞻과 顧榮 등이 왕도를 ‘강남의 희망’으로 여긴 사실을 詩化한 것이다. 승구는 조정에서 왕도를 丞相軍諮祭酒로 삼았을 때 桓彝 등이 ‘江左의 管夷吾’라 한 사실을 시로 쓴 것이다. 전·결구는 재상으로 어려웠던 진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元帝, 明帝, 成帝를 섬겨 出將入相한 왕도를 포양

17) 『晉書』 卷65, 「列傳」 35, “…帝嘗從容謂導曰 卿吾之蕭何也 …”

18) 『晉書』 卷65, 「列傳」 35, “…桓彝初過江 …往見導 極談世事 還 爲周顛曰 向見管夷吾 無復憂也…”

한 것이다.

부모님 뜻 잘 받드길 노래자 같았는데,	候色承顔似老萊
어찌하여 차마 옷자락 자르고 나왔을까.	如何更忍絕袪來
세상을 평정하려면 냉철한 마음 길러야지,	枕戈當勸水臙志
구구한 옥경대가 무슨 소용 있다던가.	不用區區玉鏡臺
-이상은 溫嶠를 읊음-	-右 溫嶠-

온교는 진나라 때 祈사람으로 어려서부터 聰敏하여 널리 배워 글을 잘 했다. 젊어서 孝悌를 잘 하여 邦族에 칭찬이 자자했다. 위에서 다른 유곤이 그의 이모부여서 유곤의 권유로 참군하여 從事中郎, 上黨太守, 都督前鋒軍事 등을 거쳐 대장군에 올랐다.

기구는 효성이 대단하여 史臣이 승안후색이 노래자도 더할 수 없었다고 한 것<sup>19)</sup>을 시로 쓴 것인데 열전 溫嶠傳 마지막의 사신이 평한 내용을 시로 구성한 것이다. 승구도 劉琨의 권유를 받고 벼슬길에 나가려 할 때 모친 최씨가 만류했으나 모친이 잡고 있던 옷자락을 자르고 벼슬길에 나온 전의 기록을 시로 쓴 것이다. 전·결구는 온교가 劉聰을 정벌하고 얻은 옥경대를 두고 온교의 신중하지 못함을 폄자한 것이다.

「讀麗史有感」

고려사를 읽고 느낀 점이 있어 쓴 연작으로 이색, 최영, 길재, 권근 등 4인에 대한 요점을 7언 절구 형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말선초의 왕조 교체기는 정치적으로 혼란했고 많은 인물의 희생이 따랐고 공신들도 많았는데 이

19) 『晉書』, 卷67, 「列傳」 37, “史臣曰…太眞性履純深 譽流邦族 始則承顔候色 老萊弗之可也…”

네 인물만을 선정한 것은 이들의 역사적 사실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남달랐음을 알 수 있다.

조국이 망하려는데 나는 어디로 갈까	宗祚將覆我何歸
주위의 자질구레한 비난 피하질 않았다네.	不避傍人屑屑譏
두 번의 중국 사행 무슨 일 이루었나	再使天朝成底事
창왕을 독촉하여 천자 비려던 계책 끝내 어긋났네.	督昌觀帝計終違
- 이상은 牧隱 -	-右 牧隱-

1389년 위화도 회군으로 우왕이 강화도에 쫓겨나자 이색(1328-1396)이 曹敏修 와 함께 창왕을 옹립하여 즉위토록하고 判門下府事가 되어 명나라에 사신가서 창왕의 입조와 명나라의 고려에 대한 감국을 주청하였으나 이루어 지지 못함을 쓴 시이다. 기·승구는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불안한 조정의 대신으로, 주위의 기롱을 의식하지 않고 고려 왕조를 보필한 목은의 처신을 나타낸 것이다. 목은은 대신이었고 원나라에 가서 會試, 殿試 등에 합격하여 관직도하고 고려에서도 높은 관직을 해 한산백에 봉해지는 등 고려사 열전과 문집 연보가 전해져 영사시로서 다양한 소재가 많은데 저물어가는 시기의 고려왕정에 참여한 내용만을 다루었다. 7언 절구의 단형이지만 작가의 목은에 대한 사평으로 볼 수 있다.

명나라 황제의 위력 물리칠 자 누구던가	明帝威名孰可擠
요동 정벌은 샴쟁이 잡는 닭과 다를 없네	攻遼無異搏狸鷄
최공이야 충성을 도모하는 선비였고	崔公自是忠謀士
피맺힌 일편단심 죽어 변치 않았다네.	一掬血腔死不迷
-이상은 崔瑩 -	-右 崔瑩-

명나라가 鐵嶺衛의 설치를 통보하고 北邊 일대를 명나라에 귀속시키려 하

자 최영(1316-1388)은 八道都統使로서 요동정벌을 계획하고 왕과 함께 평야에 가서 군사들을 독려했으나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좌절된 후 이성계군과 싸우다가 체포되어 유배후 攻遼罪로 참형당한 내용을 시로 형상했다. 기·송구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싸움에서 고려군을 닮은 명군을 삼팽이에 비유한 것에서 요동정벌이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했다. 그래서 요동정벌을 하려는 것은 무리였다고 작가가 폄자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전·결구에서 최영을 忠謀士로 규정하고 고려를 위한 일편단심을 포양했다.

선생의 끈은 절개 참으로 우뚝한데,	先生苦節儘崢嶸
왕씨의 강상을 한 손으로 떠받쳤네.	王氏綱常隻手擎
세상따라 말이 다른 것을 한으로 여겼으니,	最恨言辭隨世異
신조 두 글자 쓰는 데 대한 평이 없을 수 있을까	辛朝二字可無評
-이상은 治隱 -	-右 治隱-

길재(1353-1419)의 끈은 절개와 鮮初의 辛朝 사용에 대한 야은의 처신을 핵심으로 나타냈다. 기구에서 야은을 '선생'이라 칭했다. 순암의 글에서 선생을 붙인 것은 자신의 은사인 성호와 퇴계, 야은 정도다. 이렇게 볼 때 야은을 대단히 존경했음을 알 수 있다. 송구에서는 고려 왕조의 강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야은을 크게 포양했다. 전구에서는 새 왕조인 조선 건국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고려말기 신돈의 시대를 '辛禍' 또는 '辛朝'라 한 것을 야은이 恨으로 여기면서도 거기에 대한 평을 하지 않으데 대한 의문을 나타냈다. 순암은 신우의 문제에 대해 잘못된 것이란 관점을 지녔다.

절의 당당한 선비라 자임하더니,	節義堂堂士自任
양촌이 당시 시세를 깊이 헤아렸네.	陽村當日揣摩深
가련할 손 한 편의 진정표	可憐一首陳情表

공명에 물 든 것이지 어찌 본심일까  
-이상은 陽村 -

染指動名豈素心  
-右 陽村-

권근(1352-1409)이 고려와 조선 양조에서 벼슬을 하며 당시의 정황을 잘 헤아려 처신한 것을 기·승구에서 시로 썼다. 전·결구에서는 조선의 새 왕조의 원종공신 대열에서 권근이 빠지자 자신도 문장으로서 조선 개국에 일익을 담당할 공로가 있음을 밝힌 陳情箋과 83세인 자신의 부친에게 봉작을 해달라고 간청한 陳情笏子를 조정에 올린 것을 펴자하였다.

이상과 같이 악부체의 영사시와 근체시 7언 절구형의 영사시를 살펴 보았다. 악부체 영사시에서는 비정형이란 악부시 형식과 표현의 특성을 살려, 구체적이면서 서사적인 구성과 역동적인 운들의 조화를 통하여 고대사에서 빠진 인물과 사건을 노래했으며, 7언 4구의 영사시에서는 기승전결이란 세련된 정형의 형식과 표현으로 함축과 상징을 통해 중국 진대의 인물과 우리나라 여말선초의 대표적인 인물을 시화했다. 악부체에서는 악곡의 문체인 ‘歌’, ‘行’을 붙여 노래를 상징하였고, 7언 4구에서는 일반 근체시 표현의 명제법을 썼다. 악부체, 7언 4구 모두 시적 주제는 역사 인물과 사건에 대한 褒貶으로 영사시로서의 성격을 잘 드러냈다.

#### 4. 영사시에 나타난 역사의식

순암의 영사시에 나타난 역사의식은 그의 일반적인 역사의식이 배경이 되기에 일반적인 역사의식을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역사가가 지켜야 할 대법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대저 역사가의 대법은 계통을 밝히고, 纂逆을 엄히하고, 충절을 포양하고,

시비를 바로 잡고, 典章을 자세히 해야 한다.”<sup>20)</sup>

이것은 ① 계통, ② 찬탈과 반역, ③ 충절, ④ 시비, ⑤ 법제 등 다섯 가지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과거의 역사가들이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에 올바른 역사가 기술되지 못했다고 생각한 순암의 역사의식에서 결정된 소산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역사를 옳게 기술한 것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겼으며 이런 의식 아래서 동사강목이 집필하게 된 것이다. 당시 간행된 사서에 대한 평을 한 것이 동사강목 서문에 있다.

“삼국사기는 소략하면서 사실과 틀리고, 고려사는 번잡하면서 요점이 적고, 동국통감은 의례가 어그러짐이 많고, 역사제강과 동사회강은 간혹 필법이 어그러진 것이 있다. 오류로 인하여 오류를 답습하고 잘못으로 잘못 전한 것에 이르러서는 여러사서가 비슷하다.”<sup>21)</sup>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역사서를 본 후 동사강목 집필시 참고자료로 제시한 채거서목에서도 자신의 견해를 상세하게 드러냈다.

역사서 편찬의 관점과 생각이 승화된 역사의식도 그대로 영사시에 용해되어 있다.

앞의 「觀東史有感效樂府體五章」에는 고대사를 증시한 순암의 역사의식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빠뜨린 것을 스승인 성호가 지었는데 순암이 보니 그 속에도 빠뜨린 것이 있어 지은 것이 成己歌 등 다섯장이다. 成己歌는 동국통감에 중국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 놓아

20) 안정복, 『東史綱目』 「序文」, “...大抵 史家之法 明統系也 嚴纂逆也 正是非也 褒忠節也 詳典章也 諸史於此 實多可議...”

21) 안정복, 위의 책, 같은 곳, “...三國史 疎畧而爽實 麗史 繁冗而寡要 通鑑 義例多舛 提綱會綱 筆法或乖而因膠囊撰 以訛傳訛...”



성기가 모반해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지은 노래시이다. 나아가 동사강목에도 자세하게 쓰고 또 按說에서 당시 나라가 파멸되고 임금이 사망하여 대신들이 배반하였으나 오직 성기 만이 굳건히 지켰으니 路人의 무리가 나라를 팔아 살기를 원한데 비한다면 충절이 위대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러한 역사의식이 작품에 투영되어 앞장에서 본 것처럼 노래시를 통해 成己의 충절을 높이 포양했다. 악부체로 쓴 다섯 편은 성기의 충절, 용산성장의 충절, 문훈의 승전, 이름 모르는 노사의 용맹, 신라의 정벌 등으로 모두 국가간의 전쟁과 관련한 武勇談을 소재로 한 것으로 순암이 중요하게 여긴 역사이다. 순암은 타국의 역사 기록을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 우리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역사서에 누락된 것을 보충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역사의식을 지녔다고 하겠다. 이런 의식을 바탕으로 역사가의 대법을 구현하기 위해 역사서도 쓰고 영사시도 지은 것이다.

진서를 읽다가 쓴 「詠史」 4수는 우리의 역사가 아닌 중국의 역사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곤, 왕도, 광박, 은교는 惠·懷·愍·元·明·成帝 시대의 인물이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정국이 불안정하여 처신이 어려울 때의 처세관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기에 소재를 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에서도 해당 인물의 생애 중 중요한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시로 형상하여 포폼을 한 역사의식이 함용되어 있다.

「讀歷史有感」에서도 순암의 역사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이색, 최영, 길재, 권근 이 네 사람 중 앞의 두 사람은 고려사 열전에 기록되어 있고 뒤의 두 사람은 시기적으로 고려사 열전에 입전될 수는 없었지만 산발적인 기록이 있다. 모두가 麗末鮮初의 과도기에서 출처의 어려움을 겪었기에 앞장에서 다룬 시에서도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처신했느냐에 주제가 맞춰져 있다. 고려사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에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과도기의 인물들에 대한 순암의 역사의식은 동사강목의 按說에서 찾을 수 있다.

이색이 시중으로 명나라에 가서 ‘親朝’를 청해 당시 사람들로부터 기롱을 받은 일에 대해 순암은 다음과 같이 안설을 붙였다.

“사람들은 목은을 기롱하였으나 이것은 그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다. 목은은 고려에 마음을 둔 사람이니 태조(이성계)의 위덕이 날로 성하여 민심이 돌아가는 것을 그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그 때는 칠령에 衛를 설치하는 일이 미봉되었고 요동을 공격하여 황제를 격노하게 한 일도 허위로 되었으니 일의 기미에 대한 긴절함은 천조 한 가지 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sup>22)</sup>

이 내용을 이해하고 앞 장의 시를 보면 목은의 행위는 당시 정세에서 그렇게 밖에 할 도리가 없었다는 상황을 인정한 것이다. 이 점은 고려사 열전의 기록이나 선초의 사평과 다른, 순암의 역사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앞장의 시에도 투영되어 있다.

최영에 대한 안설은 成俔의 『慵齋叢話』 ‘赤墳’ 이야기와 卞季良의 시를 인용<sup>23)</sup>하여 청령에 대한 포양을 수용했다. 열전에서 빠져한 부분을 동사강목에 쓰면서 앞장에서 다른 시에서는 쓰지 않았다. 이는 전대의 역사 기록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되기에 본인이 쓴 역사책에는 기록했고, 영사시에서는 작가의 관점에서 임의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사시에 역사의식이 더욱 강하게 투영되어 있는 경우이다.

야은에 대한 고려사 기록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순암은 동사강목에서 야은이 벼슬을 버리고 귀향했다는 사실 밑에 傳에 가까운 장편의 기록을

22) 안정복, 앞의 책, 17卷 上, 1月, “…人以牧隱爲譏 然非知其心也 牧隱心乎麗者也 太祖威德日盛 人心歸向 非其所欲也…當是時 鐵嶺立衛之事 已彌縫矣 攻遼激怒之舉 又歸虛矣 其事機之緊切 實無過於親朝-一節…”

23) 안정복, 앞의 책, 卷17 上, 12月, 최영이 최영에 임해 ‘내가 평생 탐욕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무덤에 풀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무덤에 풀이 나지 않아 적분이라 한 기록을 붙였고, 변계광의 시(奮威光國鬢星星 學語街童盡識名 一片壯心應不死 千秋永與太山橫)을 병기했다.

붙여 썼다. 학통과 학문의 경향, 지극한 효성, 중들의 감화, 세상에 전하는 병  
 즐과 부인 이야기, 인품을 흠모하여 원근의 학도가 모인 사실, 권근의 인물  
 평까지 부기했다. 앞장에서 다룬 시에서의 ‘辛朝’ 문제는 당시 고려에 대한 지  
 절로 존경을 받았으면서 조선에 들어와서 辛朝니 辛禍니 하는 말로 우왕을 폄  
 하하는데도 그런 말을 써서는 안된다고 하지 않고 왜 가만히 있었느냐는 순  
 암의 상징적인 질책에 가까운 것이다. 이런 부분에도 순암의 역사 의식이 강  
 하게 투영되어 있다. 고려사에는 우왕과 창왕을 신돈의 아들이라 하여 다루  
 지 않고 반역 열전에 편입시켰는데 순암은 이런 의식이 있었기에 동사강목에  
 서는 ‘辛禍’라 쓰지 않고 ‘廢王’이라 썼다.<sup>24)</sup> 조선 건국을 합리화하기 위해 왕  
 을 반역자로 격하시킨 것을 다시 왕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이것은 고려사를  
 편찬한 역사가들과 상반된 역사 의식을 지닌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양촌에 대해서는 고려사에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동사강목에도 많은 곳에 언급된다. 대부분이 관직 수행에 관한 단순 언급이  
 고 앞에서 다룬 시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동사강목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  
 다. 조선개국 2년 전인 1390년 공양왕 2년 11월 권근이 우현보 이색 등과  
 함께 사면되는 기록에, 적소에서 있으면서 『入學圖說』, 『五經淺見錄』을 지은  
 것을 서술하고 이색 정몽주의 문하에 출입하여 문장과 학술이 당세에 으뜸이  
 었으나 혁명 후에 절개를 지키지 못하여 청론에서 버림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권근을 신흠이 “계룡시<sup>25)</sup> 잘 읊어 개국공신 되었다”고 혹평한  
 기록과<sup>26)</sup> 당시 사람들이 권근을 기롱한 시까지 인용되어 있다. 그러나 순암

24) 안정복, 앞의 책, 16卷 上, “乙卯 前廢王禍 元年…”, 17권 상, “尊廢王 爲上王 母謹妃 爲王大妃”, “己巳 後廢王昌 元年…”

25) 새 왕조를 칭송한 세 편 중 「進風謠」의 “…相臣來相 鷄龍之墟 山川環拱 氣淑以儲 風水 之勝 協于圖書…”의 ‘鷄龍’ 때문에 일명 계룡시라 했다.

26) 안정복, 앞의 책, 공양왕 2년, 11월, “…申氏曰 權近彼罪 一則以牧隱 一則以陶隱 苟當 時安於流放 則其文章明論 烏何於二公 以鷄龍一頌 遞作開國龍臣 哀哉…”

은 앞 장에서 다룬 시에서는 陳情箋과 陳情筍子를 인용하여 더욱 확실한 근거로 권근을 폄자했다. 시에도 역사의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 5. 맺음말

순암 안정복은 경학, 역사, 문학, 지리 등 다방면에 걸쳐 48종의 저술을 남긴 학자이다. 그의 학문의 경향은 『동사강목』으로 인해 역사에 중점이 두어져 있으나, 철학, 문학적 측면에도 중요한 면이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학문적 계통은 스승 이익의 영향을 받아 성호우과의 근기퇴계학파에 속하며 황덕길, 허전으로 이어진다.

순암이 남긴 137편의 시는 詠史, 詠物, 次韻, 情懷, 등 다양하나 그의 중심 학문인 역사와 관련된 영사시는 대단히 중요하다.

악부체 영사시에서는 비정형이란 악부시 형식과 표현의 특성을 살려, 구체적이면서 서사적인 구성과 역동적인 운률의 조화를 통하여 고대사에서 빠진 인물과 사건을 노래했다. 그 인물에는 成己, 文訓처럼 성명이 밝혀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 甕山城將, 弩士 등 성명이 밝혀져 있지 않는 사람도 있다. 모두 나라를 위해 용맹을 떨친 충신이었으나 역사에 제대로 기록이 되지 않고 다른 악부시에서도 빠져 있어 이를 포양하기 위해 순암은 악부시를 지었다. 절구형의 영사시에서는 起承轉結이란 세련된 정형의 형식과 표현으로 함축과 상징을 통해 중국 晋代의 인물과 우리나라 여말선초의 대표적인 인물을 시화했다. 진대의 劉琨, 郭璞, 王導, 溫嶠 모두가 관리로 처세한 중요 사건을 들어 포폄을 가했다. 여말 선초의 李穡, 崔瑩, 吉再, 權近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도 왕조교체기에, 중요 사건에 관계하여 처신한 사실을 들어 포폄을 가했다. 악부체에서는 악곡의 문체인 ‘歌’, ‘行’을 붙여 노래를 상징하였고, 7언 4

구형에서는 일반 근체시 표현의 命題法을 썼다. 악부체, 7언 4구 모두 시적 주제는 역사 인물과 사건에 대한 褒貶으로 영사시로서의 성격을 잘 드러냈다. 안정복은 역사가의 대법이 계통을 밝히고 찬역을 엄히하고 충절을 포양하고 시비를 바로잡고 법제를 자세히 해야 한다는 역사의식을 지녔는데, 이 의식이 영사시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으며, 특히 충절과 시비에 대한 포폄이 가장 농후하게 투영되어 있다.

순암의 영사시는 작품 수는 많지 않지만 우리의 고대사와 고려사, 중국의 淸史를 다루어 영사시의 사적 전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순암은 남다른 역사의식을 지닌 역사가이며 시인이요, 박학한 학자였기에 그가 지은 영사시도 남다른 모습으로, 그의 다른 문학과 함께 문학사적 위치를 지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작가들의 영사시들과 비교 검토를 거쳐야 하기에 다음 기회로 미룬다.

## 【참고문헌】

- 安鼎福, 『順菴集』, 『東史綱目』, 『順菴全集』
- 강세구, 『순암 안정복의 학문과 사상연구』, 해안, 1996.
- 金榮淑, 『韓國詠史樂府研究』, 경산대학교 출판부, 1998.
- 심우준, 「순암 안정복의 사관」, 『중앙대논문집』 25, 1981.
- 「순암이 본 중국사서설」, 『한국학 문헌연구의 현황과 전망』, 아세아문화사, 1983.
- 최준하, 「順菴 安鼎福 文學의 一考察」 -시와 전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43, 어문연구학회, 2003. 12.
- 姜世球, 「安鼎福의 歷史理論 展開와 그 性格」, 『국사관논총』 93, 국사편찬위원회, 2000.
- 姜秉樹, 「順菴 安鼎福의 思想研究」, 『향토서울』 5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2.
- 최성환, 「英·正朝代 安鼎福의 學問과 東史綱目 편찬」, 『한국학보』 110, 일지사, 2003.
- 車長燮, 「安鼎福의 歷史觀과 東史綱目」, 『朝鮮史研究』 1, 복현조선사연구회, 1992.

## Abstract

The Characteristic of History and Literature and Spirit of History  
Shown in the Historical Poem(詠史詩) of An Jung-Bok(安鼎福).

Kim, Young-Sook

An Jung-Bok(1712-1791) is the scholar who archived wide and various studies such as philosophy, history, literature and geography. His wrote 48 books and his school belongs to Toigye School of near capital. Especially, among various books. 『Dongsagangmok(東史綱目)』 is very famous so there are a lot of study about it. He wrote 137 poems. They are divided into the one written by seeing something, thinking friendship with his acquaintance, thinking sages and thinking study. Historical poem(詠史詩) dealt in this study means the poem reading history and writing feeling. As the works that he wrote because he repented something was omitted in other person's historical poem that is based on the history of the age of Three Kingdoms, there are 「Seonggiga(成己歌)」, 「Ongsanseongjangga(甕山城將歌)」, 「Cheonseonghaeng(泉城行)」, 「Nosahaeng(弩士行)」, 「Baekmachonghaeng(白馬塚行)」. They were freely expressed adjusting its form to song poem. Because it has the form of Jangdangu(長短句), its rhythm is irregular. It is long and has the characteristic of lyric including history. They showed writer's mind appraising commander who was brave in combat with foreign country or worrying the country. In 「Yeongsa(詠史)」based on the history of old China, Jin(晉), the writer appraised talents of Yu Gon(劉琨), Gwak Bak(郭璞), Wang Do(王導) and On Gyo(溫嶠) and evaluated gain and loss in government service during confused age. In the poem based on the history of Goryeo Dynasty, he appraised the talents of Li Saek(李穡), Choi Young(崔瑩), Kil Jae(吉再) and Kwon Geun(權近) and evaluated behavior in government service life. These 8 works followed the form of modern poem(近體詩) and showed the expression of Gi, Seung, Jeon Gyeol(起·承·轉·結) well. Writer's mind of history is focused on whether the character of history

kept loyalty. The spirit appraising the person who was dead in the combat in the age of Three Kingdoms, woiman Chosun and evaluating the behavior of the person in the age that dynasty is changed. Although other historian did not admit King Uh and King Chang as king, An Jung-Bok admitted them as king.

**Key Word**

An Jung-Bok(安鼎福), Historical poem, 「Seonggiga(成己歌)」,  
「Ongsanseongjangga(甕山城將歌)」, 「Cheonseonghaeng(泉城行)」,  
「Nosahaeng(弩士行)」, 「Baekmachonghaeng(白馬塚行)」